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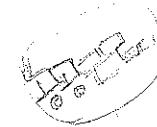
크리스챤과 교회 봉사

김 철 봉 목사
(연구원·마산제일교회)

“진실의 광택은 깊이 파면 팔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보석을
캐내게 된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있는 보석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곧 ‘봉사’라는 것이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바꿀 수도 없다. 봉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댓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값진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상은 인도의 독립운동가요, 민족의 스승이었던 간디(M. Gandhi)
가 인도 국민들과 우리 인류에게 남겨놓은 소중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단지 간디가 남겨놓은 드러난 이 가르침만을 주목하고
있노라면 인간 간디라는 인물이 과연 위대한 사상가요, 도덕가라는 강한
인상만을 가지게 된다.

간디 스스로 이런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을까? 간디가 자신만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느 정도 복음적이었는가에 관한 논쟁은 이 글이 다투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다. 다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봉사’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선(善)이라는 진리를 결정적으로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간디의 고백을 서두에 소개하는 것은 실은 예수님의 봉사관 내지 봉사론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사족(蛇足)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심을 보라!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돋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 마 10:8).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몸소 봉사의 삶을 사셨다. 주님의 삶은 또 평소에 남겨주신 말씀 그대로였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1) 우리 사는 땅위에서 가장 가치있고 아름다운 행위는 “봉사”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통치섭리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시다. 우주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법칙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봉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진행과 보존에 있어서 ‘홀로 서기’란 있을 수 없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는 더불어 살아가며, 봉사 속에서 서로의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육신 목적을 “봉사”에 두셨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온 인류로부터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경과 흠토를 받고 있는 분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 한 가지, 봉사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다. 하늘 나라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내려 오시되 사람으로까지 낮아지셨다. 사람 가운데서도 ‘종’(doulos)의 위치로까지 낮아지셨다. 왜 그러하셨는가? 섬기기 위해서이다. 위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아래로 우리 죄인들을 섬기려 오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최후에 음부에 까지 내려가심은 ‘봉사’의 완전한 성취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이름이 아름답고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봉사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서 봉사하는 사람도 아름답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시종일관 봉사자의 삶으로 걸어가심은 너무도 아름답고 고귀하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밤새 고기 잡느라 허기져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새벽 미명에 디베랴 바닷가에까지 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시던 ‘봉사’의 주님이셨다.

2) 봉사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일 뿐 댓가를 바라지 아니한다.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무슨 댓가를 바라면 이미 봉사의 정신과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봉사가 봉사답기 위해서는 댓가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부르신 것은 ‘봉사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사도직의 진정한 정신을 ‘봉사’라고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행 1:17, 18,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은 이는 댓가나 물질적 이익에 마음을 쓰거나 눈을 돌리는 일이 있었는데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는 그런 오해가 ‘불의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행 1:18). 심지어 저 평범한 하인마저도 봉사의 진정한 정신에 충실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 하시지 않았던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눅 17:10)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이 비밀과 은혜와 축복을 생각한다면 놀랍고 감격할 뿐이다. 신명기 33:29의 말씀 그대로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돋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감격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정말 순수하고

멋진 봉사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당연히 될 수 있으리라! 이 감격과 고백을 경험한 구약 성도는 이렇게 서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 116:12-14)

신약의 위대한 신앙이요, 사도인 바울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봉사 자세를 다음과 같이 인상깊게 고백하였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고후 12:15)

3) 개혁신앙(교회)의 특징은 “봉사”의 원초적 의미를 얼마나 살리고 있느냐 하는 데서 이야기되어져야 한다.

언필칭 개혁신앙, 개혁주의 신자라는 말들을 우리는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너, 나 할 것 없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하면서 스스로 놀라게 된다.

우리들의 봉사정신이나 태도가 과연 얼마만큼 성경에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얼마만큼 성경적 원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라!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봉사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마저 무슨 ‘댓가’를 은근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사, 성가대, 구역 활동… 등에서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와 배경에서 ‘봉사’가 실천되고 있는가? 댓가를 염두에 두면 그것은 더 이상 봉사가 아니다. 재능상의 어떤 분야에서 독특한 재주와 기교를 가졌다 해서, 교회 봉사가 순수하게 ‘봉사’에 머물지 못하고 거기에 무슨 댓가가 운위된다면 벌써 그 사람의 뛰어난 재능은 하나님의 ‘상품’으로 전락되어 버린다. 자신의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감사해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 자세이어야 한다.

사실 우리들, 목회자들조차도 가능하다면 순수한 봉사자로 머물고 싶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를 바쳤으므로 그 삶을 받는다고 해도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전 9:7-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使徒職, Apostleship)을 가리켜 ‘집사직’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고전 3:5). 그것은 ‘사도직’마저도 집사와 같은 순수한 봉사자의 자세 위에서 수행되어야 더욱 아름다운 것임을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사도뿐 아니라 천사들도 집사와 같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였다(히 1:14).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무슨 댓가나 보수를 바랐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사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못한 것일까? 사실은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흡모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하고 간단하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봉사’ 그 자체여야 한다. 참 봉사니, 거짓 봉사니 하는 말조차 구태여 만들어 쓸 필요가 없다. 봉사는 언제나 ‘봉사’ 그 자체일 뿐이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나 이유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개혁주의자의 봉사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그 해답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딤전 1:12; 고전 4:2; 계 2:10)

더 이상 우리는 난해한 이론이나 자기 변명내지 자기 미화로써 “개혁주의”(신앙·교회)를 윤위하지 말자. ‘봉사’로써 말하자! ‘봉사’로써 보여주자! ‘봉사’로써 전도하자!